200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노아, 다니엘, 욥—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본들

메시지 17

욥
(4)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됨

성경: 욥42:1-6, 고후4:10-12, 16-18

I.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을 얻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였다—욥38:1-3, 42:1-6.

A. 욥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감소시켜 아무 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시지만 욥의 존재는 유지하심으로써(2:6) 그분 자신을 욥 안에 나누어주실 시간을 얻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우리 안으로 역사해 들어오시는 것—만을 관심하신다.

B.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얻고, 그분에 동참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분을 더욱 더 누려 그들의 누림이 최고도에 도달하여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빌3:8-9, 계21:2.

II.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고후3:16, 18.

A.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엡1:17-18, 3:16-17, 고전2:9-16, 고후4:13.

1.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모든 성분을 우리 존재 안에 우리의 내적 공급으로 받아들인다—16-18절.
2.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주의하여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충족함의 비결로 취해야 한다—2:13, 7:5-6, 말2:15-16, 시91:1, 빌4:11-13, 시90:1-11, 31:20, 사32:2.

B.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마5:8, 13:18-23.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됨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엡4:23, 신17:18-20.
2.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 그분의 집을 위하는 우리의 열성이신 그분으로 충만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후5:14, 딤후1:6-7, 요2:17, 막12:30.
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정복되고 고난들을 통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순복하게 해야 한다—빌2:13, 참조 아4:1, 4, 7:4상, 5.
4. 우리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정결케 하고 순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반드시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행24:16, 딤전3:9, 히9:14, 10:22.

III. 변화는 우리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즉 옛 사람의 형태에서 새 사람의 형태로

옮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임에 의해 이것을 성취하신다—고후 4:10-12, 16-18.

A.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한다. '죽인 것' 은 죽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인다—고전15:31, 36, 요 12:24-26, 고후1:8-9.

B.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합된 영 안에 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을 적용한다—출30:22-25, 롬8:13.

C. 그리스도인 생활은 항상 복합된 영에 의해 죽임 아래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매일 죽이는 것은 죽이는 무기인 환경과 함께,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

1.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의 역사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조성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바깥에 있는 그 영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각 방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2.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그 영께서 우리 속에 조성하신 것만이 가치가 있다—참조 렘48:11.
3. 우리는 운행하시는 영과 동역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해 주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빌4:12, 엡3:1, 4:1, 6:20, 고전7:24.

D. 하나님의 신성하고 주권적인 안배 아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임을 통해 우리의 선,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합력한다—롬8:28-29, 참조 시31:15상.

1.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유쾌한 기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18 제목.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기도를 갈망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을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가 탄식하는 가운데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롬8:23, 26, 참조 대하20:12, 왕상8:48.

Ⅳ.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진 결과이다. 우리가 본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으로 역사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다.

A. 환난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오는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성육신이다. 은혜는 주로 환난의 형태로 우리를 방문한다—고후12:7-10.

B. 환난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는 효능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더하시는 길을 만든다—1:8-9, 4:16-18.

C.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 인내는 입증된 가치—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체험한 결과 얻게 되는 입증된 가치나 속성—를 가져온다—롬5:3-4.

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살아 계신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분을 산다—5절, 8:31-39, 빌 1:19-21상.

© 2005 Living Stream Ministry